

## A Study of Effective Ways of TEE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Kyoungsun Choi  
(Gungdong Elementary School)  
Hyesook Park  
(Kun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ective factors and their listening/speaking proficiency, and based on this study. For this end, two classes of third graders from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Ik-san took part in the study. The one class was taught English through 90% TEE, while the other class was taught through 50% TEE. The participants' responses on the questionnaires and their listening/speaking score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were colle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or chang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both of the two classes improved in terms of their listening and speaking scores, but the 50% class improved more than the other 90% class. For affective factors, the 90% class showed increase in motivation, attitude, self-esteem and interest, while the 50% class showed increase in motivation, participation, and anxiety, but some decrease in self-esteem.

**Keywords:** TEE,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affective factor

### I. 서론

박 원(1992)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영어사용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TEE 수업이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TEE 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입장과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영어교실 현실에서는 시행되기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성숙(2002)은 TETE 의 예상문제점들로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수업분위기가 침체 될 수가 있으며 학습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수업의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루해질 수도 있고 교사의 자질문제를 들고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수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이 미영(2004)은 초등학교 6 학년 240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ETE 가 학습자들의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모국어 병행수업보다 미흡하고 영어수업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의 하락 정도가 모국어 병행수업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고 수업태도도 점점 나빠졌다고 한다. TETE 를 찬성하는 이 규선(2002)은 교사의 영어사용은 언어습득을 촉진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며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 집중시키고 자신감을 증대시켜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큰 효과를 가져 온다고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이상과 50%의 영어로 TEE 수업을 진행해 본 뒤 두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의적인 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아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초등영어교육 목표 달성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어로서 적절한 영어사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영어 학습과 정의적 요인

정의는 감정과 느낌을 나타낸다. 정의적 영역은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이며 우리 자신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느낌을 포함하여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믿고 가치 부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제 2 언어습득 이론과 감정적인 통제가 미숙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정의적 특성들로 자아존중, 동기, 불안감, 태도, 흥미 등을 들 수 있고 Krashen(1982)에 따르면 학습자의 이러한 정의적 특성들을 언어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자유롭게 통과시키거나 방해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과장치로 본다. 이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가 낮은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보다 많은 입력을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 있게 상호작용하고, 수업 시 더 수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인해 언어 습득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 2.2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 2.2.1 TEE의 정의와 TEE에 관련된 언어습득 가설

TEE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말하는 것이고 TEE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어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의사소통 하는 가이다. 외국어 학습의 초보단계인 초등학교들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교사는 입력제공자, 발화모델, 상호작용 촉진자들의 다양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TEE에 관련된 언어습득 가설로는 Krashen(1981)의 학습-습득 가설이 있고 성인인 제 2 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는 무의식적으로 언어 체계를 구조화하는 습득과 의식적인 학습이 있는데 성인이 유창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습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력가설인데 Krashen에 의하면 이해 가능한 입력이 '제 2 언어 습득'에 유일한 진정한 원천이라 했다. 세 번째 가설은 Swine의 출력가설인데 출력이 학습자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입력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는 Michael Long의 상호작용 가설이다. 상호작용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의미의 협상과 수정된 상호작용에 의해 언어 입력이 보다 이해가능 해진다는 것이다.

#### 2.2.2 TEE와 관련된 교수법

TEE와 관련된 교수법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 중 6가지를 꼽아보았다. 첫째로 Asher(1969)가 창안한 TPR인데 교사가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표언어를 사용하여 지시나 명령을 하고 학생들이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목표어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자연 교수법인데 Krashen & Terrell(1983)이 제안한 교수방법으로 학생이 모국어에 의존하지 않고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목표언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배우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 언어교수법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 2 언어 교수접근법으로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때 의사소통 능력이란 문법적 지시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능력이 포함된 개념이다. 네 번째로 협력학습 접근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학급에서 짝이나 소집단을 구성한 학습자가 협력활동을 최대한 이용하는 교수접근 방법이다. 다섯 번째로는 내용중심 접근 방법인데 언어 교수가 학생들이 습득 할 내용 혹은 지식 중심으로 조직된다. 내용중심 접근 방법은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제 2 언어를 배우기 위한 학습자의 필요성을 더 잘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과업중심 접근 방법은 의사소통법의 '변형된 최근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교수법은

언어교수의 계획과 지도의 핵심단어로 과업을 이용하는데 기초를 둔 하나의 접근방법이다. 그리고 과업은 의사소통 원리(필수적이고 유의미한 과업수행)를 적용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제안되고 있다.

###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인 면(동기 및 태도, 불안감, 흥미도, 자아 존중감)과 그들의 듣기, 말하기 능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교사의 효과적인 영어 사용 정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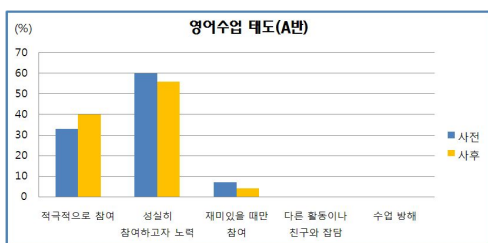
이 연구를 위해 익산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3 학년 2 개 반을 임의로 선정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듣기, 말하기 시험을 거쳐 성적이 더 높은 한 반을 90% 이상의 영어를 사용하고, 성적이 조금 낮은 다른 한 반을 영어와 우리말을 50%씩 병행하여 8 주 동안 수업진행을 한 뒤 다음의 6 가지 점들을 알아보았다.

1. TEE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변화
2. 동기 및 태도변화
3. 불안감 변화
4. 자아 존중감 변화
5. 흥미도 변화
6. 듣기, 말하기 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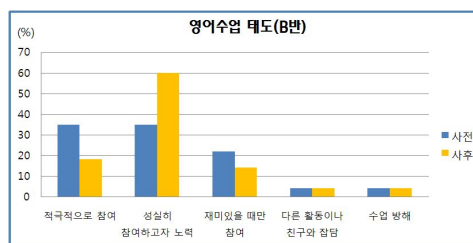
### Ⅳ. 결과분석

[표 1] 연구 대상: 3 학년 2 개 반 (5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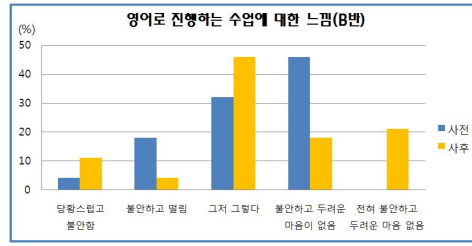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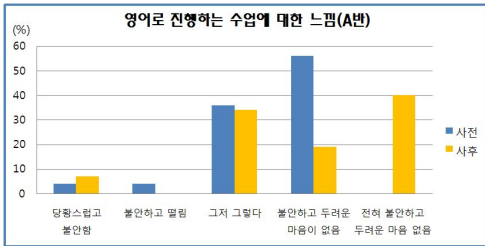
구분	명	교수-학습 방법
실험반(A)	27 명	90% 이상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진행
비교반(B)	28 명	50%씩 우리말과 영어를 혼용하여 수업진행
계	5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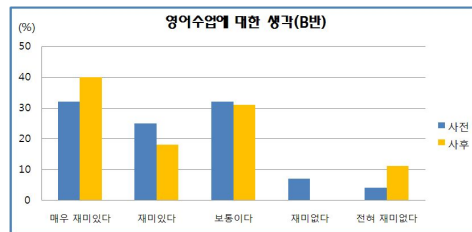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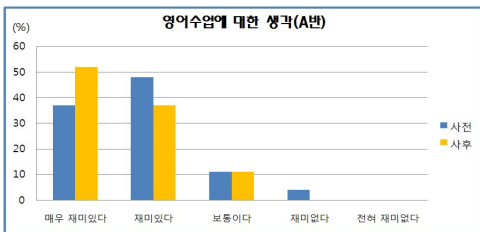
[그림 1] 영어수업태도 A 반



[그림 2] 영어수업태도 B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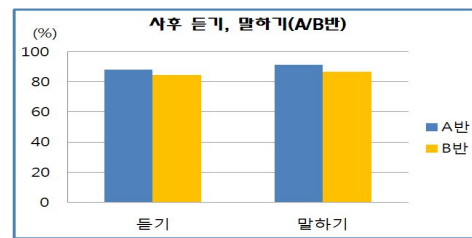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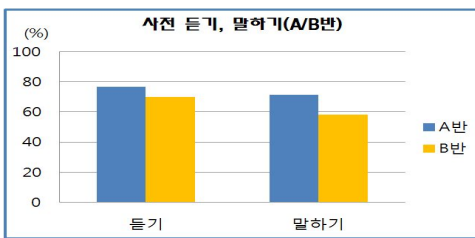


[그림 3]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느낌 A반 [그림 4]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느낌 B반



[그림 5] 영어수업에 대한 생각 A반

[그림 6] 영어수업에 대한 생각 B반



[그림 7] 사전 듣기,말하기 A/B반

[그림 8] 사후 듣기,말하기 A/B반

[표 2] A반 사전· 사후 듣기 분석

사전(N=26)		사후(N=26)		t	p	평균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6.54	3.061	88.08	1.711	-4.391	0.00	-11.538

[표 3] A 반 말하기 사전· 사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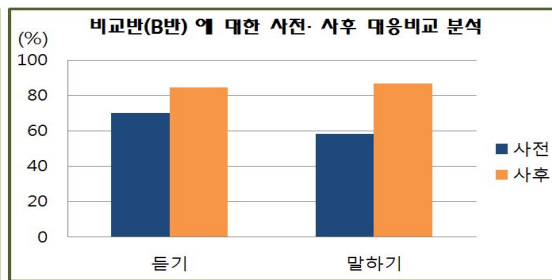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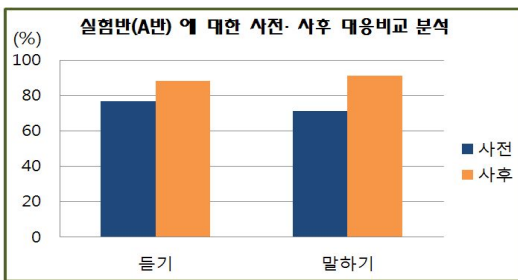
사전(N=26)		사후(N=26)		t	p	평균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1.15	4.782	91.15	2.952	-6.094	0.00	-20

[표 4] B 반 듣기 사전·사후 분석

사전(N=27)		사후(N=27)		t	p	평균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829	0.001	-14.630
70.00	2.560	84.63	3.540			

[표 5] B 반 말하기 사전·사후 분석

사전(N=27)		사후(N=27)		t	p	평균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8.082	0.000	-28.519
58.15	3.461	86.67	3.994			



[그림 9] A 반 사전/사후 대응비교 분석 [그림 10] B 반 사전/사후 대응비교분석

V. 결론

첫째, 90%이상의 영어를 사용해 영어수업 진행을 한 A 반은 59%가, 우리말과 영어를 반반 병행수업을 한 B 반은 46%가 영어를 전부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한다고 하였고 A 반은 15%, B 반은 22%가 영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수업이 도움을 준 영어능력으로는 듣기, 말하기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영어사용능력으로는 A 반이 78%, B 반이 68%로 자유롭게 영어를 사용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장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였고 A 반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

둘째, 아이들의 동기 및 태도 변화는 A 반은 내적인 동기 및 외적인 동기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B 반은 내적인 동기는 증가하였지만 외적인 동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수업 시 참여도도 A 반은 93%에서 96%로 집중해서 참여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하려 한다는 아이들이 소폭 증가를 하였고 참여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B 반은 70%에서 78%로 참여도는 증가하였지만 A 반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셋째, TEE 수업이 아이들의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A 반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B 반은 불안감이 많이 적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소수의 아이들만이 오히려 불안감의 폭이 약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TEE 수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은 A 반은 B 반에 비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하는 사전/사후질문조사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70%정도가 유지되었고 오히려 '그렇다'의 아이들이 '매우 그렇다'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B 반은 두 답변에서 61%에서 57%로 감소된 모습은 보였으나 오히려 부정적인 아이들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듣기/말하기 자신감면에서는 A 반은 듣기와 말하기가 각각 증가되었으나 B 반은 듣기는 많은 자신감 상승을 보였으나 말하기는 39%에서 43%로 소폭만 상승하였다.

다섯째, TEE 수업이 아이들의 흥미도에 미친 영향은 A 반은 사전조사에서 '매우 재미있다'와 '재미있다'가 85%에서 89%로 대다수가 흥미를 보였고 수업진행 후에도 소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B 반은 사전/사후조사에서 58%의 흥미만을 보였고 수업진행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영어에 대한 관심도는 A 반이 56%에서 70%로 상당히 증가하였고 B 반도 57%에서 61%로 소폭 상승되었다. 또한 수업진행 후 A 반은 부정적인 아이들이 4%에서 0%로 줄어든 반면 B 반은 11%에서 오히려 18%로 증가하였다.

여섯째, TEE 수업이 3 학년 듣기, 말하기에 미친 영향은 A 반과 B 반은 사전듣기에서 76.54 와 71.15로 사전듣기에서는 A 반이 점수가 높았고 사후조사에서 A 반은 11.79가 증가된 88.33, B 반은 13.48이 증가된 84.63이 나왔다. 둘 다 듣기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고 특히 B 반이 좀 더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말하기 부분에서는 듣기보다 더 많은 성적증가를 보였는데 A 반, B 반은 사전조사에서 71.15, 58.46으로 말하기에서 월등히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조사에서는 A 반은 20.33이 증가된 91.48, B 반은 28.21이 증가된 86.67의 점수를 나타내어 두 반 다 말하기에서 듣기보다 2 배 이상의 성적을 보였고 그 중 B 반의 성적이 훨씬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로 볼 때 90%이상의 영어로 진행한 A 반은 내적, 외적 동기와 태도, 자아 존중감, 흥미도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불안감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증가하였고, 50%의 영어와 우리말을 병행 수업한 B 반은 내적 동기, 영어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불안감은 낮아졌으나 자아 존중감, 영어 발표 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는 등 두 반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으나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에서 큰 성장을 보였고 그 중 말하기가 더 많은 성장을 보였으며 A 반보다 B 반의 듣기, 말하기 성장 폭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 REFERENCES

- 이 미영 (2004). *초등학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평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rashen, S.(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1982). *Principles and practi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 Ter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Pergamon Press.
- Asher, 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1): 3-17
- Swain, M. (1983). The output hypothesis: Just speaking and writing aren't enough.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158-164
- Michael Long (1996).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Ritchie & T.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413-468). San Diego: Academic Press.

### **About the Presenter**

**Kyoungsun Choi**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Now she is teaching English at Gungdong Elementary School in Iksan, Jeollabuk-do. Hyesook Park works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Her special field is SLA and English writing.